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에 빠지다

‘비창, 월광, 열정...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全曲) 여행.’

2020년은 ‘악성(樂聖)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공연과 음반 발매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19로 취소·축소돼 아쉬움을 줬다.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역시 지난해 4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코로나 19를 피하지 못해 수차례 연기를 거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전남대학교 ‘피아노 페스티벌-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가 클래식 팬들을 찾아온다. 신수경 교수를 비롯해 32명의 연주자가 베토벤 소나타 32곡 전곡을 모두 연주하는 대장정이다.

음악학과는 오는 16일부터 4월 2일(오후 7시 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지난 2018년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강사진 15명이 32곡 중 15곡을 연주하는 교수음악회를 연주한 적은 있지만 32명의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하는 것은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베토벤은 교향곡 ‘운명’, ‘합창’ 등 오케스트라곡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했다. 특히 그의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피아노의 신약성서’라고 불릴 정도로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작품들



신수경



이근영



서현일

로, 베토벤의 전 생애에 걸쳐 작곡된 터라 그의 작곡기법의 변천과정이 그대로 묻어 있어 흥미롭다.

32곡의 소나타 작품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유명한 곡들이 많다. 이번 공연은 ‘비창’, ‘월광’, ‘열정’, ‘발트슈타인’, ‘템페스트’ 등 귀에 익은 소나타를 비롯해 소나타 전곡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와 강사진 14명을 필두로 미국 신시내티 음대 박사과정 재학생을 포함한 음악학과 동문, 전남대 음악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등이 참여해 음악적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16일 첫 공연에서는 김아름의 21번 ‘발트슈타인’, 이정은의 23번 ‘열정’, 백계준의 12번, 정민정의 16번 연주를 감상할 수 있으며 22일에는 17번 ‘템페스트’ (김영진)를 비롯해 32번(최현호),

11번(김연), 9번(이현주2)을 들려준다. 그밖의 3월 연주 일자자는 23일, 25일, 29일, 31일이다.

4월에는 두차례 공연이 열린다. 1일에는 15번 ‘전원’ (김유빈)을 비롯해 5번, 6번, 18번을 강효미·윤상아·이근영이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인 2일에는 최현호가 8번 ‘비창’을, 서현일이 ‘합머클라이버’를 들려주며 14번 ‘월광’ (이준영), 7번(이지은)도 만난다. 정확한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표 참조. 문의 062-530-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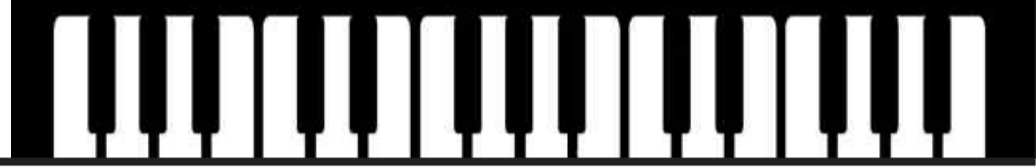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 페스티벌’ 전남대 음악학과, 16일~4월2일 32명 연주자, 32곡 전곡 연주

■ 전남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일 자	연주자·연주 프로그램
3/16 (화)	백계준(12번), 정민정(16번), 김아름(21번 발트슈타인), 이정은(23번 열정)
3/22 (월)	이현주2(9번), 김 연(11번), 김영진(17번 템페스트), 최현호(32번)
3/23 (화)	최선희(1번), 함지연(10번), 최예은(20번), 최주원(25번)
3/25 (목)	이명호(19번), 이인지(27번), 신수경(28번), 송수미(30번)
3/29 (일)	이재영(4번), 송지영(13번), 이현주(22번), 최현아(26번 고별)
3/31 (수)	김경혜(2번), 유미향(3번), 김형진(24번), 송유진(31번)
4/01 (목)	강효미(5번), 윤상아(6번), 김유빈(15번 전원), 이근영(18번)
4/02 (금)	이지은(7번), 최현호(8번 비창), 이준영(14번 월광), 서현일(29번 합머클라이버)



아름다운 남도풍광이 이국적 풍물을 만나면...

김은자·심강식·양정숙 3인전

19일까지 북구청갤러리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구레 산동 마을의 산수유. 아름다운 남도 풍광과 이국적인 풍물이 만났다.

한국화가 김은자·심강식·양정숙 작가 3인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는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교육대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김은자 작가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화폭에 담아냈다. 작가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웅장함을 만날 수 있는 마추픽추 가는길,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앞 오일광장, 페루 쿠스코의 산 페드로 시장, 탕고의 고향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미 최남단 비글해협 등을 화려하고 정열적인 색감과 자유로운 붓질로 풀어냈다.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는 양정숙



김은자 작 ‘우유니사막 소금호를-볼리비아’

작가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 산국화, 봉어와 어우러진 연꽃, 붉은 단풍 등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화폭에 담아냈다. 또 고즈넉한 수목원의 아침,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소나무가 인상적인 ‘담양 가는 길’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심강식 작가가 펼쳐놓은 세계는 세밀하게 그려낸 자연과 사람들이

다. 구레 산동의 아름다운 산수유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해져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졌으며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동심’이라는 작품에 담겼다. 그밖에 봄·여름·가을·겨울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정겨운 마을과 자연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문화관, 공연 무료촬영·인터넷 중계 온라인 나눔 진행... 14일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사계’ 생중계

‘온라인으로 공연의 즐거움을 나누다.’ 유·스퀘어문화관이 코로나19로 지친 연주자들과 클래식 팬들을 위해 무료로 온라인 나눔 공연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제한으로 오프라인에서 관객들을 만나기 힘든 연주자들과 공연장을 찾기 힘든 클래식 팬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스퀘어문화관은 현재 지역 음악인들이 마음껏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인 동산아트홀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문화관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 연습하는 음악인들이 원할 경우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연을 라이브 방송해 주거나 연습 장면을 촬영·편집해 연주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금호아트홀에서 공연할 경우 연주자 원하면 유튜브 라이브 송출, 영상 촬영·편집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10일에는 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된 ‘무등 오페라단’이 온라인 공연 프로젝트를 통해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오는 14일(오후 7시)에는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과 내



윤소영

셔널 솔리стен 앙상블이 함께 펼치는 ‘사계’ 공연 실황을 유튜브 채널 ‘유스퀘어클래식’을 통해 라이브 송출한다. 16일, 17일에는 광주오페라단이 동산아트홀에서 ‘한국 가곡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성악 공연을 펼치며 이 무대는 연습장면을 촬영 후 향후 별도 컨텐츠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현재 유·스퀘어 문화관은 유튜브와 팟빵에서 음악 채널 ‘유스퀘어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공연 음원은 유튜브에서 ‘유스퀘어 클래식’을 검색하거나, i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봄향기 가득하니 ‘국악이 더 좋구나’

국립남도국악원, 13일 기악·무용 등 전통예술공연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3일 오후 5시 토요일 ‘국악이 좋다’를 선보인다. <사진>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에게 봄의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성악, 기악, 무용 등의 전통예술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봄’으로 단가 ‘사철가’로 첫 무대를 꾸민다. 이어 기악합주 ‘수제천’, 무용 ‘춘앵전’,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민요 ‘사철’, ‘신사철가’, ‘판굿’까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토요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9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기존 노선(진도읍사무소 출발 오후 4시10분) 외에 새로운 노선(솔비치 진도 출발 오후 4시20분)을 추가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공연 관람객들에게 추천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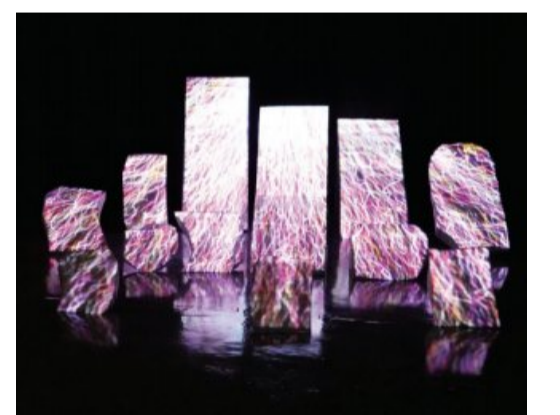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미디어아트 특화 레지던스’에 입주할 제10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미디어아트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문화 교류, 시민 참여 활성화 기여 등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내실을 다져왔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에 위치해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창작공간이 제공되며 창작지원금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전시 2회, 국내외 교류, 비평가 매칭, 역량강화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결과보고집 발간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주년을 기념해 1~10기 역대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 교류전시’가 예정돼 있다.

모집인원은 5명(팀)이며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공간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관련 작가로 타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입주가 결정되면 매달 15일 이상(하루 4시간 이상) 레지던스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문화



지난해 열린 특별전 김명우 작 ‘더 버거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cherry0@gjcf.or.kr)하면 된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공모 및 입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020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에는 강수지, 김형숙, 이부리(이근우), 유지원, 김명우 작가 등 5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전시 ‘충간기억’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했다. 문의 062-670-7456.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